

북아프리카 핵심 거점 이집트와 산업·통상 협력 가속화

- 「한-이집트 조선 협력 MOU」로 조선산업 친환경 전환 협력 강화
- 북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이집트와 C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8일(목)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이집트 정상회담(10.8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칼레드 하셈(Khaled Hashem) 이집트 산업부장관과 양국 간 조선산업 역량 강화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한-이집트 조선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MOU는 이집트 정부의 ‘2030 수에즈운하 그린 전략*’에 발맞추어, 양국 간 진행·검토 중인 공동 사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수리, 인력양성, LNG 병커링 등 친환경 조선 인프라 구축 분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 대응, 수에즈운하 통항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 촉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조선산업 역량과 이집트의 적극적인 조선산업 육성 정책 추진 의지의 결합을 통해, 향후 국내 조선 기업의 미래 선박 건조·수리, 특수선 건조 협력, 기자재 수출 등 이집트 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모하메드 파리드 살레(Mohamed Farid Saleh)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

문」에 서명함으로써 북아프리카 국가와는 최초로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양 통상장관은 그간 추진해 온 국내절차 및 협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협상을 개최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제2위 경제국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인구 약 1.2억 명,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핵심 거점국이다. 이번 조선산업 협력 MOU 체결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양국 간 산업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는 등 지정학적 이점을 갖춘 이집트와의 CEPA 협상 개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거점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금번 체결된 조선 협력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차원의 이행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CEPA 협상 추진에 속도를 내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집트 주요 장관들*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계기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CEPA 협상을 통한 상호 무역·투자 활성화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현지 주요 사업(가전, 의류 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차질없는 기업 활동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 산업부 장관, 수에즈운하경제특구청 청장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종엽 (044-203-5720)
		담당자	서기관	이덕미 (044-203-5727)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허은재 (044-203-4335)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우희승 (044-203-5743)